

~~전은 사람, 이거 환갑이라서 말로 하면 중년 저등 1976. 전은 사람에게 환갑이라는 말을
 기쁨을 전하기 이상하다. 나 40을 넘어서서 생각해보면... 하여 줄대 저는 기쁨이 전 이상함~~

오늘 저가 이 자리에서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보니
 마음속에 기쁜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수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표로 한번 두손을 드려서 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총회여러분들

60th Birthday
 S.H.M

- 장로회신학대학
- 아세아 신학원
- 연세대학교
- 승건대학교
- 승실고등학교
- 선명회
- 기독교서회
- 아세아연구회
- 서울 노회
- 신학교/동창회

- 연합 장로교선교부
- 왜국인교회, 그리고
- 경안중고등학교
- 경안 성서학원
- 또 저의 동생이 있는 대구 동산병
-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 특필회, 미국대사 내외분
- 전국 각 교회, 목사님, 내빈 여러분
- 교우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0년 기간 동안 이나마, 지난 날을 회고하여 보면, 아름다운
 평양에서 다시 ^{모란봉 아육} 대동강을 즐기면서 자라다가,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가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 47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일하는중 공산중가가 됨으로
 선교의 길이 막히고 그로인해 ~~말~~ 저는 일생에 가장
 슬픈 일을 경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복~~ ^{대위해} ~~가~~ ^로] 마히 바울이 환상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무라는 말을 들은것 같이, 한국에서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55년에 한국으로 와서 우림4명과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전는 일생에 가장 기쁜 20년을
 지냈습니다.

전는 이렇게 고향 땅에 와서 자랑할만한 일도

저는 이렇게 고향땅에 와서 자랑할만한 일도
별로 한것이 없고. 도저히 배운것이 많습니^{어린 후환}다.
또 나이 육십이 되였다고 해도, ^{어린 후환} 대접 받을 나이가
되지 못 한줄 압니다.

창세기 오장 27권을 보면 무두셀라 이란분은
969 세를 살았으니 칭찬을 받을 만 합니다.
Methuselah는 969 년 사랐는데, 저는 육십년^{밖에}
못 사랐으므로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909년도
사라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장께서 설교하신대로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다시주시는
새로운 기회 인줄 알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늘 드림^이면서 내가 사랑하는 한국과
한국민족과 그리고 온 아세아에 교육과
복음전파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남은
여생을 바침으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코
[보답코]려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t seems to be customary on an occasion like this to take a quick look back at one's life. So - I was born 40 years ago. Disregard the documents you've been given - there must be some mistake - 40 yrs. ago. And the next thing I can remember was when I met Ellen. So much for my life - except for one important thing. The Lord has been very good to me indeed. He let me, an American, be born in Korea. What an exciting combination: to be a part of 2 such countries, one 200 yrs. young, - & the other with a culture 4000 yrs. old. I'm proud of both - ~~It's a combination~~ and glad that missionaries had much to do with joining the 2 countries.